

독창적 예술언어로 선보이는 일상 속 새로움

광주신세계갤러리 연말기획전 'Pictures'...내년 1월9일까지

김상연·윤상하·이정록·김은경·이이남·정덕용 6명 작가 참여

‘익숙한 것으로부터 새로움을 찾아가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설렘의 시기,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지역 작가들의 독창적 예술언어를 선보이는 전시를 마련했다.

다양한 표현매체를 통해 각자의 시각이미지를 창작, 자신을 표현하고 질문을 던지는 작가 6명의 연말기획전 'Pictures(픽처스)'가 내년 1월9일까지 개최된다.

시대의 흐름 또는 독자적 사유의 흐름에 따라 작가는 자신만의 시각 이미지를 하나의 고정된 방식이 아닌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김상연 작 '나를 드립니다'



김은경 작 'Sit on the fence -1'



윤상하 작 'Dream land'

이밖에도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디지털로 표현한 이이남 작가의 '바다가 보이는 방', 사슴뿔의 형상을 나무에 빚대 생명을 드러내는 이정록 작가의 'LUCA', 죽은 벌레를 거미줄에서 끌어내 작은 함에 안식시키며 '연민'에 대해 질문하는 정덕용 작가의 '연민으로 짓누르기'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익숙한 듯한 낯설음이 하루, 하루 지나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다채로운 전시작들을 감상하며 항상 바라보는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나와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제자鼓手 100인이 선사하는 박병천 진도북춤 향연

국립남도국악원, 내일 故 박병천 명인 15주기 추모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새박병천류 진도북춤 보존회를 초청해) 박병천 명인 15주기 추모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박병천 명인이 남긴 예술세계를 기억하며 그의 제자들이 꾸미는 무대다.

먼저, 1부 '박병천의 삶'에서는 박 명인이 대중화·세계화·무대화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경기, 충청 농악', '진도씻김굿' 무대가 펼쳐진다.

2부 '무송제현무'는 박 명인의 제자들이 '교방검무', '비상', '고깔 소고춤', '살풀이춤', '진도북춤' 등을 통해 선생을 그리며 마음을 담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특히 100여명 제자들이 동시에 한 무대에서 진도북춤을 선보이는 특별한 장면이 펼쳐진다.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진도북춤의 대장관이 연출될 예정이다.

한편, (새박병천류 진도북춤보존회는 고 박병천 명인의 진도북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다. 매년 추모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국내외 연주회를 통해 박 명인의 진도북춤을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최명진기자

(사)박병천류진도북춤보존회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ACC, 문화예술 치유 교구재 배포

광주스마일센터와 미술꾸러미 공동개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예술 치유 교구재를 개발, 코로나19 의료진과 감정노동자 등에게 배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불안과 우울감,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특수계층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광주스마일센터(센터장 양수진)와 문화예술 치유 교구재를 공동 개발에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치유 교구재는 ACC가 보유한 공공미술 작품을 기반으로 광주스마일센터와 함께 '작품 감상'과 '창작 활동(마음치유)'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활동꾸러미다.

미술을 활용한 표현 활동은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 고

통과 기억들을 작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ACC와 스마일센터는 지난 3월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문화예술 치유 교구재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

국혜운 광주스마일센터 임상심리사는 “비언어적인 표현방식, 다양한 상징의 사용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참여자가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강현 전당장은 “마음치유가 필요한 분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 치유 교구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상처받은 이들이 삶의 활기를 되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국악프로젝트그룹 RE'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루(대표 문보라)팀의 무대 '정선아리랑', 아쟁 2중주팀 'TWO정 (대표 유건영)'의 '공명' 무대가 잇따라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판소리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담(대표 이승현)'의 '신사랑가' 무대가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은 전통문화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최명진기자

‘무등풍류 댄’, 저무는 임인년 대미 장식

11일 전통문화관...유튜브 생중계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 올해 마지막 '무등풍류 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1일 오후 1시30분 유·복합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무등풍류 댄'을 개최한다. 이날 전통문화관 일대에서는 12월 '동지'와 2023년 1월 '설' 절기를 주제로 한 조형물 전시와 포토존이 운영된다.

야외 전시 작품은 자연만들기(대표 류종원) 미술작가팀이 맡았다. 전통문화관 숲을대문 주변과 보행로 화단 등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고 전통문화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오후 1시30분 숲을대문 앞에서는 투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버나놀이 등 재밌는 민속놀이가 시민들을

맞이한다. 문간채 앞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을 배경으로 가족과 함께 사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한복을 대여한다.

오후 3시 서석당에서는 지역 청년 국악단체 6팀의 공연이 펼쳐진다. 중견 작곡가 및 전통음악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멘토와 청년 국악인 멘티 간 멘토링 지원 무대로, 올 하반기 동안 배운 음악적 기량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다.

이날 공연의 첫 무대는 판소리 흥보가를 모티브로 전통 판소리에 현대적인 리듬을 더해 만들어낸 '국악프로젝트 RE'팀(대표 임재원)의 '이놈의 심술이야'가 장식한다.

이어 대중들에게 친숙한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라운(대표 박지인)'의 '새타령' 창작 공연, 지역 아리랑과 대중에게 친숙한 민요를 재구성한 '그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사모집

카메라

전문 수리 기술자 모심

마스타 레벨 이상 자격을 갖추신 분 특별우대

정규직 급여 상담 후 결정



문의전화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